

‘반도체 불모지 광주의 꿈’ AI반도체 특화단지 구축 첫걸음

광주시, 국내 최초로 국산 AI반도체 공공분야 실증 환경 구축 성공 NHN·SKT 컨소시엄 통해 AI반도체 서버 시스템 적용 작업 본격화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핵심인 AI반도체 특화단지 구축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국내 최초로 공공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서비스 실증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23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NIPA) 주관한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 2021년(1차년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2022년(2차년도)도 연속 과제를 이어간다.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은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독자적 기술력과 레퍼런스(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AI반도체 기반 서버 및 응용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모사업으로 AI반도체 관련 기술 및 실증 역량이 있는 기업과 기관 등을 선정하고 2년간(1차년도 평가 통과 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업단은 지난해 ‘AI반도체 실증지원사업’을 위해 NHN(주), SKT(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산 AI반도체인 SKT SAPEON X 220(87TOPS·초당 87조번의 정수 연산처리)에 대한 성능 검증 및 3개 상용 서비스(민간 분야 2건, 공공분야 1건)에 대한 응용 실증 과제를 수행했다.

1차년도 사업으로 광주지역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인 ‘AI 기반 골연령 판독 시스템’에 국산 AI반도체를 첫 적용했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가동을 공식 입증하는 성과 등을 냈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활용하는 ‘의료영상을 통한 AI 기반 골연령 판독 서비스’의 응용 서비스 실증 작업을 통해 국산 AI반도체의 안정적 처리 속도, 정확도, 결과 오차 등 수요자 관점의 사용성 평가 지표를 수립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는 그동안 외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돼 왔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국산 AI반도체 사용이 본격화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사업단은 사업 2차년도인 올해에도 NHN-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기술 개발 AI반도체 서버 시스템에 적용할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공 서비스를 선정하고, 실증 레퍼런스를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이처럼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지원

하기 위해 국가 AI 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기반 국산 AI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환경 등을 구축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국산 AI반도체 기반 서비스 실증 레퍼런스가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다양한 AI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까지 완벽하게 구축되면, AI반도체 실증과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광주시의 핵심 미래사업 중 하나로,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AI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외산 AI반도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조감도.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산 AI반도체의 공공분야 서비스 실증 환경 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산 AI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면 국내 개발 AI반도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글로벌 BPO 트랜스코스코리아 광주에 1000석 ‘AI 콘택트센터’ 설립

시와 투자협약 체결

트랜스코스코리아가 광주에 1천석 규모 인공지능(AI) 고객센터를 설립한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트랜스코스코리아와 ‘AI 콘택트 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AI 콘택트 센터는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로 고객의 문제를 상담·접속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곳이다.

사측은 자체 개발한 AI 엔진을 도입해 음성을 텍스트화한 데이터를 활용, 2025년까지 AI 콘택트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문기술 상담, AI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4년에 걸쳐 상담 인력 1천명,

연구 인력 2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트랜스코스코리아는 세계 30개국 168개 거점, 6만 4000여명 임직원이 23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경영상 핵심 업무 지원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전문 기업에 맡기는 아웃소싱 모델) 그룹이다.

한국 법인은 평균 나이 34세, 1만여명 임직원이 근무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연 매출 3600억원을 달성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1000여개는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활용한 콘택트 센터 구축이 성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로에서 (주)트랜스코스코리아 권상철 대표이사외 AI 콘택트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 동지 튜닝자동차 튜닝기업 알비티모터스 급성장

지난해 26억4000만원 매출

전남도의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2019년 영암으로 이전한 자동차 제조기업(주)알비티모터스가 지난해 26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보다 254.0% 성장했다.

2019년 설립한 (주)알비티모터스는 소량생산 커스텀 오토 스포츠카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최이자 유일하게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확인서를 취득했다. 설립 첫해 매출액 1억원이었다.

특히 첫 모델인 ‘MK1’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기준으로 한 배터리 및 관련 모듈 탑재에 최적화된 친환경 자동차 자체 플랫폼까지 제작하며 동종 업계에서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및 특장차 부품을 개발해 공급하고, 전기바이크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

전남도와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에서 주관한 ‘자동차부품산업 제품고도화 지원사업’, ‘튜닝부품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선정돼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실차평가, 특허등록 등의 지원 및 협업을 통해 고품질의 소량생산 수제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 이성조 대표는 “올해는 축적된 기술력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을 완성하고 전기와 수소전기 자동차 사업으로 확장해, 동종 업계와의 연구개발(R&D) 사업 등 더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알비티모터스는 올해 매출 목표를 46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이를 알리기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 모델 MK1 첫 출격을 앞두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내 석학들과 인공태양 산업생태계 구축 협의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 제시

전남도가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인공태양’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석학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2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과제책임자인 이용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포항공대, 원자력연구원 등 인공태양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산업생태계 구축 타당성 조사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

었다. 나 교수 등은 이날 전남도의 인공태양 산업 선점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 체계,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가 공동으로 착수한 이번 연구는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20여 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전문성 높은 탄탄한 계획 수립에 중점을 뒀다.

연구는 인공태양 핵심기술 분류 및 기술 성숙도 조사,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 방안, 연차별 소요 인력 및 인재 양성 방안, 부지 기반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공태양 전문가 의견 수렴, 도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전남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유치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공태양 관련 연구기반 조성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오는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인공태양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했고, 대학원생 중심 인공태양 인재 양성을 앞두고 있다.

또 지자체 최초로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인공태양실증로용 초전도도체 실험설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485억원을 확보했다. 을

해부터 6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첫해 사업비는 40억원이다. 초전도도체는 과기부가 발표한 인공태양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형 부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류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확보 문제에 직면한 만큼 무한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인공태양의 가치가 날로 커질 것”이라며 “연구 인프라와 역량을 확실히 확충해 전남도가 꿈의 에너지인 인공태양을 상용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매주 금,토,일 광주출발 셔틀버스 운행

당일투어 1인 13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199,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